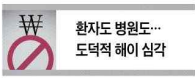


# “등 아프다” 1명이 2050회 진료… “추석 MRI 할인” 부추기는 병원

(작년)



A1면에서 계속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초음파·MRI 진료비는 건보 적용 첫해였던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38476억원으로 3년 새 10배로 높아졌다.

건보 재정의 위기는 ‘총체적 난국’에 가깝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가 보험 급여 항목을 대폭 늘려 놓은 ‘문재인 케어’로 향후 수년간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건보 급여 항목을 늘려왔는데 관리 실패로 인한 비급여 진료가 못 붙어 불거져 나오면서 건보 재정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건보 부담을 늘렸는데 국민 부담도 늘어나는 관리 부재 상태가 된 것이다.

일부 의료 이용자와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 누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150회 이상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18만9000여 명으로,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1조9000여 억원에 달했다. 2017년 150회 이상 진료를 받은 건보 재정(1조5500여 억원)에 비해 4000여 억원이 더 늘었다. 작년에 5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532명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진료 과목은 원구과로 1인당 평균 125회 내원했다. 이어 한방내과(115회), 내과(93회), 마취통증의학과(69회), 신경외과(55회) 순이었다. 입법조사처는 “과

다한 의료 이용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난 정부 주장과 달리,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쓴 요양급여 비용은 95조4000여 억원으로 전년(86조550000여 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건도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지출도 계속 늘어나 보험 급여비 1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의 보험료 수입 확충과 정부 지원 여건

**500회 이상 외래진료 받은 환자  
침구과·한방내과 가장 많이 이용**

**150회 이상 진료받은 19만명에  
작년엔 건보재정 2조원 투입**

**문케어 이후 MRI·초음파 진료비  
3년 만에 10배 늘어 1조38400억**

은 갈수록 어려워져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정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 측은 “과다 의료 이용자들은 대상으로 의료 이용 현황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의료 이용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피부양자가 진료 목적으로 단기간에 입국하는 등의 사례도 건보 재정 누수를 부추긴다. 외국인인 건보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피부양자는 서류 기간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차관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입국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서울과 강원도 일대의 부실 의료기관을 인수해 과다 진료와 검사를 일삼는 방식으로 총 171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간 ‘사무장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병원 운영진은 법인카드로 수익원을 쓰고 고급 차량을 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느라 손실 보상금을 수십억~수백억원씩 과다 지급하고, ‘의료 쇼رف’ 등을 방치해 재정이 최소 수천억원 낭비됐다는 내용의 건보 재정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케어는 MRI나 초음파 외에 총 3800여 가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 기간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었다.

대표적으로 백내장 수술 같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악재에 실패했다. 백내장 수술은 2016년 51만8663건에서 2020년 70만2612건으로 35.5% 증가했다. 백내장 관련 실손 보험금 지급액도 병원 측의 권유 시술과 ‘의료 쇼퍼’ 등에 따라 2018년 2553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과도한 심비 의료 이용 급증에 따라 2020년 기준 실손 의료보험 손해액은 연간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 광고사례

한가위 맞이 MRI 이벤트

부모님의  
건강을  
소원합니다

기간: 2018.9.10(월)~10.31(수)

에서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절·척추 건강과 함께  
부모님의 뇌 건강까지 지켜주세요!

**EVENT** 관절, 척추, 뇌 MRI/MRA 비용 30% 할인

무릎·고관절    척추    족부    어깨·상지    뇌

상담·문의    비용은 고시가 기준으로 무릎 편측 촬영 시, 40만원 → 28만원 입니다.  
이벤트 기간 내 예약 및 내원환자 대상으로 입원환자는 제외됩니다.

추석맞이 MRI 할인 이벤트

[ ]의 소망은  
부모님의 관절·척추  
건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픈 관절·척추 치료를 미루지 않으셨나요?”

올 추석, [ ]에서 준비한 MRI 할인 이벤트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절, 척추 안부를 물어주세요.

이벤트 기간

2020년 9월 21일(월) ~ 10월 31일(토)

이벤트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예약 및 내원환자  
(\*입원환자는 제외됩니다.)

적용 부위

무릎·고관절 | 족부 | 어깨·상지 | 척추

비 용

고시가 **30%** 할인  
예시) 무릎 편측 40만원 → **28만원**

예약·문의

[ ]

[ ]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추석맞이 MRI동행 프로젝트

이벤트 적용부위 : 전체부위

~~45만원~~  
**35만원**

기간: 2021년 09월 15일 ~ 10월 31일까지

이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 19 극복과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며 **MRI 할인**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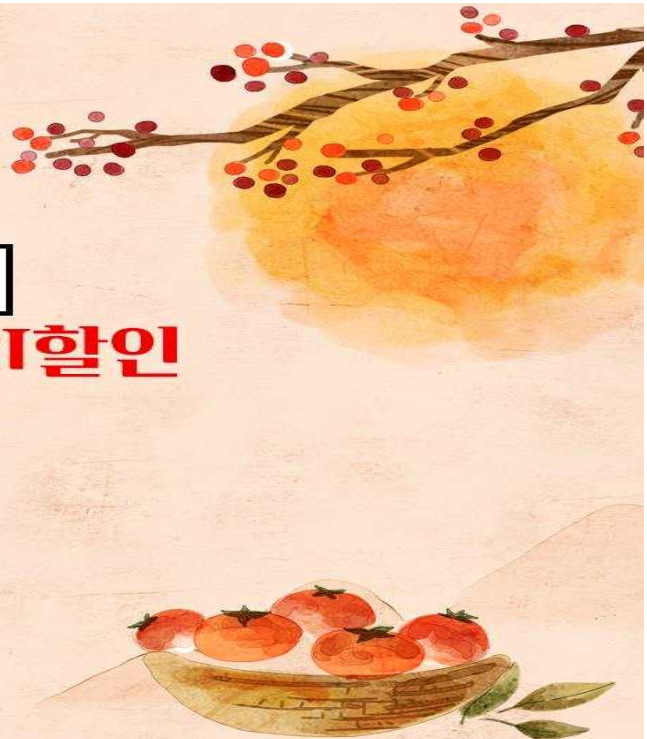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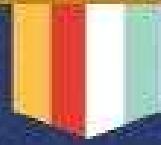
秋  
夕

**추석맞이 MRI할인**

8월 30일(월) ~ 10월 2일(토)

**MRI  
29만원**





마음을 전하는 한가위

MRI 촬영 30% 할인

가 대신 요도해 DREAM

대상 60대 이상 어르신 (1960년 이전 출생)

기간 9월 13일(월) ~ 9월 30일(목)

가 명절증후군 고쳐 DREAM

대상 40대~60대 이하 (1960년 이후~1980년 이전 출생)

기간 9월 23일(목) ~ 9월 30일(목)

- MRI 할인은 한 부위만 적용 / 목+허리 동시 검사의 경우 진료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신환 환자 1회에 한하며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MRI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추석맞이 MRI할인

할인기간 : 2019.08.19(월) ~ 2019.09.20(금)

적용대상 : 정형외과, 신경외과, 근골격계 검사 -비급여 기준-



대표전화